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한다 — 중동을 전면전으로 몰아넣는 침략을 중단하라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가 폭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최소 수백 명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학교와 병원이 폭격 대상이 되었고, 여자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최소 어린이 16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무차별적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떤 명분으로도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공격은 제2차 핵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벌어졌다. 미국은 협상 기간 동안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키며 이란을 압박했고, 결국 무력에 의존하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고 나섰다. 중동 전체가 또다시 전면전의 문턱으로 가고 있다.

이란뿐 아니라 여러 아랍 국가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에서도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는 등 중동의 민중들에게 전쟁과 파괴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한다. 가자에서의 인종학살에 공모해 온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이란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우리는 이들의 위선을 똑똑히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인종학살과 파괴, 폭력을 자행해 왔고, 서안지구에서는 불법 점령과 정착촌 확대를 지속해

왔다. 나아가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폭격과 학살, 군사 개입을 일삼으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진정한 인권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전쟁을 통해 패권을 확대하려는 전쟁광적 정치의 단면이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외교·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해 왔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학살과 폭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외세의 폭격과 제재, 정권 교체를 노린 군사 개입은 결코 그 사회에 자유를 가져오지 못한다. 학교와 병원을 폭격하고 어린이 160명을 학살하는 행위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의 모든 민중은 전쟁과 점령, 외세 군사 개입 없이 자결과 존엄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다. 이란의 미래는 이란 민중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침략 행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강화하고 중동 질서를 그들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시도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패권 강화는 팔레스타인 해방과 정의로운 평화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중동의 또 다른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며, 무고한 민중의 희생에 대한 원천적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3월 3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웹사이트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 3월 14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문고

문의: 010-2546-5560

Condemn the US-Israeli attack on Iran

Stop the aggression pushing the Middle East toward an all-out war

On February 28, 2026,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launched a military attack on Iran. Several cities, including the capital Tehran, were bombed, and reports indicate that at least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so far. In particular, schools and hospitals were targeted, and news that at least 160 children were killed when a girls' elementary school was struck has shocked the world. We strongly condemn this indiscriminate military action. Massacres that take the lives of children cannot be justified under any pretext.

This attack came amid the second round of nuclear negotiations. During the negotiation period, the US pressured Iran by assembling the largest military force in the Middle East since the 2003 invasion of Iraq, before ultimately choosing the path of military force. As a result, Iran began launching retaliatory attacks on U.S. military bases in Gulf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Arab Emirates, Kuwait, Bahrain, Qatar, Saudi Arabia, and Oman. The entire Middle East is once again being pushed to the brink of a comprehensive war.

Not only Iran, but several Arab countries and others in the region are also witnessing civilian casualties, while the peoples of the Middle East endure the pain of war and destruction. The US and Israel cannot evade responsibility for this.

The US and Israel attempt to justify this attack in the name of "freedom" and "democracy." Western countries complicit in the genocide in Gaza have rushed to condemn Iran, yet remain silent regarding the US-Israeli aggression. We see their hypocrisy clearly. Israel has carried out genocide, destruction, and violence in the Gaza Strip, and has continued its illegal occupation and settlement expansion in the West Bank. It has also

escalated regional tensions through repeated airstrikes, massacres, and military interventions i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Lebanon, Syria, and Yemen. These policies pose a genuine threat to human rights and peace, reflecting a militaristic approach aimed at expanding dominance by fueling wars. The US has actively supported these policies both diplomatically and militarily.

True freedom and democracy are never achieved through massacres and bombings. Foreign bombardment, sanctions, and military interventions aimed at regime change do not bring freedom to any society. How can bombing schools and hospitals and killing 160 children be a means of spreading democracy? All peoples of the Middle East, including the Palestinian people, deserve and ha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live in dignity, free from wars, occupation, and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The future of Iran must be decided by the Iranian people themselves.

Above all, this aggression cannot be separated from attempts to strengthen US-Israeli dominance and reshape the regional order in the Middle East to serve their interests. Expanding this dominance will further distance the possibility of Palestinian liberation and a just peace. We firmly oppose the outbreak of another war in the Middle East and affirm that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for the suffering of innocent civilians lies with the governments of the US and Israel.

US and Israel must immediately stop their war on Iran!

3 March 2026

website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Palestine
solidarity activities

Palestine Solidarity Protest | March 14(Sat) 2PM, Kyobo Bookstore, Gwanghwamun

Contact: people.freepalestine@gmail.com